

전남 농업에 세계 최고 첨단 온실·자동화 기술 도입

김영록 지사, 네덜란드 쿠보그룹과 AI첨단 농산업지구 조성 협약 세계원예센터 방문...디지털 농업 전환·친환경 순환농업 교류 논의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1일(현지 시간) 네덜란드에서 세계 최고 원예기업인 쿠보 그룹(Kubo Group) 본사에서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쿠보 그룹의 피터 판 데르 크란 재무이사(CFO), 데니스 판 라이데 아시아·중동 총괄대표 등이 참석했다.

쿠보 그룹은 75년 역사를 가진 친환경 첨단온실 건축 분야 세계 최고 역량을 갖춘 기업이다. 매년 200ha 규모의 반 밀폐형 첨단 온실(ULTRA-CLIMA)을 45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전남도와 쿠보 그룹은 농축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첨단온실과 농업자동화 기술을 적극 도입·추진하기로 했다.

또 쿠보는 양질의 스마트팜 시스템을 전남도에 자문, 기술노하우 등을 연계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전남도는 인공지능 첨단 농산업융합지구 조성 시 첨단온실 구축에 따른 기술 정보 교환, 상호 방문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어 네덜란드 원예산업의 세계화 전진기지로 불리는 세계원예센터(WHC)를 시

찰하고 관계자를 만나 농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순환농업,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원예센터는 네덜란드 첨단 스마트팜 단지인 남홀란드주에 위치하고 있다. 2018년 3월 개소한 후 스마트팜 농업 관련 비즈니스, 연구·실증·시연·교육 등을 추진하는 등 원예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행사나 정보 공유의 중심지(허브) 역할을 하며 지속가능한 농업혁신센터로 거듭나고 있다.

130개 기업, 40개 연구원실, 1200명의 교육 공간 등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네덜란드 원예산업의 실리컨밸리다.

첨단 시설엔 농업용수 재활용 시스템 구축, 로봇 및 데이터 부문 연구와 실증이 진행되는 미래농업의 장 역할을 하고 있어, 전남도가 계획하는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의 벤치마킹 모델 중 하나로 꼽힌다.

김영록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 시대를 이룰 기반으로 한 디지털·스마트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사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도가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 첨단농산업용



유럽을 순방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쿠보그룹(Kubo Group) 본사에서 미래농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AI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을 위해 피터 판 데르 크란 재무이사(CFO)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전남도제공>

복합 지구 조성은 네덜란드 와게닝겐 모델같이 농업 분야도 제조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과 융복합화를 통해 디지털 스마트 농업으로 대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도는 인공지능 국립 첨단농산업진흥원 및 농업 빅데이터 센터 설립과 산학관연 연구개발(R&D) 집적단지 및 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단지 및 디지털 팜 랜드 조성

등 농업 전환의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 지구조성' 건립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사회적 합의 중요”

강기정 시장,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실현 여부 주목

강기정 광주시장이 연간 100억원 대로 추산되는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어렵지 않다”고 밝혀 청소년, 특히 중고생들의 무상교통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강 시장은 2일 열린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미정(민주·동구2)의원의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방안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시장은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혹은 그에 준

하는 문제는 시와 시의회 등 사회적 합의만 된다면 100억원 정도의 예산은 크지 않다”며 “전남도는 아동·청소년 100원 버스를 도입했고 경기도도 13~23세는 12만원의 지역화폐를 주는데 사회적 합의가 중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아동·청소년 교통 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

광주시청내 전기차 충전기 10기 개방

시중보다 평균 20% 저렴

광주시는 “전기자동차 충전 편의를 위해 충전기를 추가 확충하고 10기를 공용으로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시청 시의회동 주차장에 업무용 35기, 개방용 4기의 완속충전기가 있었으나 시설 노후화로 잦은 고장과 외부인 무단사용 등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시는 시청 시의회동 주차장에 있는 노후 완속충전기 전부를 교체하고, 업무용 충전기 35기 가운데 10기를 유료 개방한다. 1시간 이내의 빠른 충전이 가능한 급속충전기(100kW) 4기도 새로 설

치해 6월 중 개방할 예정이다.

새로 교체한 충전기는 신속한 화재대응을 위해 급속화재 전용소화기를 충전기마다 비치하고, 우천때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기준에 맞는 캐노피도 설치했다.

충전요금은 보조사업자 ㈜이차차회원으로 가입하면 ▲완속충전기는 kWh당 168원 ▲급속충전기는 320원으로 시중보다 평균 2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충전대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 30분은 요금이 면제되고 이후 50% 감면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존폐 기로 공유자전거 ‘타랑개’·노후 수도관 질타

시의회 시정질문...장애인 이동권 문제·광주 폴리 관리 부실 등 제기 강기정 시장 ‘타랑개’ 첨단지구까지 확대·폴리 관광상품 역점안 제시

광주시의회는 2일 광주 폴리의 부실한 운영 관리 상태, 존폐 기로 위기에 처한 공유자전거 ‘타랑개’ 활성화 정책과 노후 수도관 교체·상수도본부 인력 운용 문제, 부실한 장애인 이동권 등을 질타했다.

광주시의회 홍기원(민주·동구1)·박미정(민주·동구2)·이명노(민주·서구3) 의원은 이날 열린 광주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문화·교통·상수도 정책 부문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냈다.

홍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광주 구도심 곳곳에 설치된 광주폴리(Folly)를 본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재정비하는 등 폴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민선7기 때 광주폴리 점검 시 부분 철거, 이설, 철거와 리뉴얼에 대한 의견이 도출됐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도시재생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해소에 중점을 두고 폴리를 재정비하고, 나아가 문화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존 폴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억원을 투입해 돌레길 조

성, 스타 폴리 조성, 폴리간 연계 강화, 테마별 폴리투어 등 관광상품화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면서 “폴리가 광주의 품격을 높이고 중요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또 낮은 이용률로 존폐 기로에 놓인 무인 공유 자전거 ‘타랑개’의 기대효과에 대해 질 의했고, 이에 강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타랑개 운영 실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앱사용 절차 간소화,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의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개선 방안으로 현재 상무지구와 동천·광천동에서만 시범운영 중인 타랑개를 인근 첨단 지구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어 시정질문에 나선 박미정 의원은 지난 2월 발생한 수도물 공급 중단 사고를 겨냥한 듯 노후 상수도관, 특히 내구연한이 지난 경년관(楨年管) 교체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상 시급히 교체해야 할 229km의 노후관을 정비하는데 내년부터 지금보다 두배 많은 332억 원이 필요하고, 2018년부터 5년간 노후관 연장만 148km에 538억 원이 들었다”며 “이같은 예

산 배정이라면 경년관 1632km 교체는 고사하고 당장 시급한 노후관 정비에만 10년 이상 걸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상수도 업무는 갈수록 전문화, 고도화 돼 가는 추세인데 근무 기간은 짧고, 근평·승진에 불리해 유능한 인력 유출이 심각하다”면서 대책 마련도 주장했다.

시의회 상반기 첫 시정질문에 나선 이명노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운영의 부실을 지적하며 이들의 이동권 보장과 지원정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내 2100여개 의료기관 중 33곳이 장애인 주차의 병행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54%가 출입구 자동문,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고, 승강기가 없는 곳은 17곳, 장애인 화장실과 전용 주차구역이 없는 곳이 19곳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 지원을 위한 ‘새빛콜’도 법정 기준치인 129대 기준 미달, 배차문제, 증차 인력 증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2023

대한민국

진도개

페스티벌

2023. 5. 5.(금)~6.(토)

장소: 진도개테마파크 일원

주최/주관 **Jindo** 진도군

+ 반려견 시범 및 대회

- Dog스포츠 시범 및 대회
- 반려견 10m달리기 대회 등

+ 관광객 참여 체험 행사

- 어린이 탐승형 로봇체험
- 어린이 페들보트 체험
- 어린이 퍼즐 맞추기 체험
- 어린이 낚시체험
- 어린이 비눗방울 체험
- 애견 미용 체험
- 애견 수영장 체험
- 부모와 함께하는 애견 산책
- 반려동물 교감·교육 체험
- 반려견 아로마 만들기 체험
- 진도개 공예품 체험 등

모두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우리함께 만들어 가요!